

사료 수입원료에 대한 동일관세율 적용과 전체 세율의 인하를 바란다

본고는 지난 6월 8일 무역회관에서 개최된 「수입 자유화에 따른 농축산물 및 식품가공업에 관한 관세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발표된 바 있는 사료관계 부문의 발표이다.



김 인 식

서울미원(주) 사료사업담당 이사

오늘 아침도 K.B.S. 제 2 방송은 컴퓨터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아 한참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서점가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컴퓨터관계 서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우리 옆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2~3개월 전인가 제 2 방송의 컴퓨터의 입문시간에 컴퓨터의 효용성과 그 경제성을 설명하는데 사료배합을 작성에 컴퓨터가 하는 역할을 예로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첨단산업의 첨단기술이라는 컴퓨터가 그 효용성을 설명하는데 왜 하고 많은 일중에서도 1차산업의 연관산업에 속하는 사료의 배합을 작성에서 그 의의를 찾았을까요?

사료배합을 작성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듣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즉 각 원료의 영양수준과 해당가축의 생리, 그리고 자원의 제한요인이 뚜렷한 농산물을 복합해서 수학적 판단을 내리는 데는 사람의 머리로는 필요한 모든 요인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미원사료를 예로 든다면 본사의 중앙 전산실에서 배합사료관계 기초자료로 우선 70~80 가지의 사료원료를 25 가지이상의 영양성분에 따라 분류하고, 수시로 입수되는 원료관계 정보자료를 함께 입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배합할 때마다 사료종류에 따른 판매비율과 그 가격, 특히 원료의 가격과 사용제한량에 관한 자료 등을 그때 그때 필요로 하는 시간기준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료의 배합을 한번 작성하는데도 2,000여 가지 이상의 자료가 기본적으로 관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료원료의 수입관세에 관한 공청회에 나와서 컴퓨터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의아해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와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말까지의 사료판매추세로 볼 때, 금년도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을 6백만톤까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 총 사료생산량의 60%가 저희와 같은 용량이 큰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KAIST 터미널을 이용해서 사

료의 원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개 공장이 간단한 싱글믹스(single mix)의 퍼스날 컴퓨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떠한 수천가지 자료를 기초로 하는 멀티믹스(multi-mix)와 똑같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료공장이 사료의 원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율과 그 살수 있는 가격(available cost)에 따라 필요한 원료수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강 계산해서 금년에 배합사료 4백만톤이 각 원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과 가격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원가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선택되고, 또 그것에 의한 배합율을 짜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사료공장의 컴퓨터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원료를 그 영양성분에 따라 가격으로 경쟁을 시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같은 계통의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는 서로 경쟁되는 원료에 대한 차등관세율은 사료공장의 자유프스런 원료선택에 결정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옥수수의 현행 관세율은 5%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종의 경쟁되는 타 곡류, 수수, 귀리, 호밀, 맥새 등은 20%입니다. 만일 옥수수의 값이 현재 처럼 오르는데 캐나다나 기타 남미산 수수, 귀리, 호밀 등 곡류값은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가격이 영양성분상으로 14%의 차가 생겨서 귀리나 호밀이 그만큼 유리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할 때에도 우리나라 사료공장의 컴퓨터들은 가격에서 유리한 타 곡류를 제쳐두고 차등관세율의 적용에 따라 적용관세가 낮은 옥수수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관세율을 동일조건으로 경쟁시켰다면 14%나 싼 수수, 귀리를 당연하게 선택했을텐데 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간단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료공업용 옥수수 수입대금은 약 5억불에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관세율이 계속된다면 즉 영양성분상으로 10% 이상 싼 원료를 다양하게 쓸 수 없도록 한 차등관세율이 계속된다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국가적으로 연간 5천만불에 해당되는 외화의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료공장은 50% 이상 사용하는 곡류에서의 10%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료가격을 5%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양가는 축산물생산에 5% 비싼 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어떤 형태로든지 축산물을 소비하는 모든 국민에게까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 그 피해는 걱정이 되는 것 이상이라 할 것입니다.

국내 사료공장들에 광범위하게 보급된 컴퓨터가 사료배합에서 가장 효과적인 원료선택과 원가절감, 또는 사료효율개선에 관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차등관세율 적용에 따른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사료관계 현행 관세율 조정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같은 계통의 사료원료에 대해서는 동일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료원료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현행보다 낮춰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로 관세를 고율(다른 나라에 비하여)로 적용하는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선 국세수입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한다는 측면일 것입니다.

국세수입을 높인다는 첫째 이유로 볼 때 사료원료는 단순소비재가 아닌 사료공업, 축산업, 축산가공업과 그 유통과정에 걸쳐 광범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자재이므로 축산업이 발전되는 쪽으로 즉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내 생산기반 보호라는 두번째 이유로 보면 사료원료 도입에 고율관세 적용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상관관계가 약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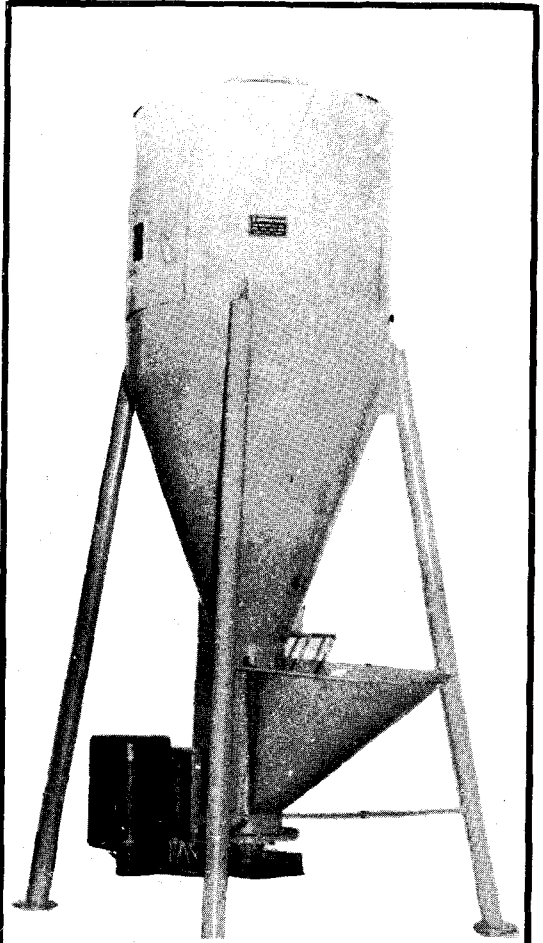
금년 1월에 저희 회사도 강원도 옥수수 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국산 옥수수를 배정받았으며, 배정량은 850톤정도였습니다. 저희 공장은 현재 월간 7,000톤가량의 옥수수를 사용합니다. 월간 사용량의 15% 정도를 연간 할당량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협을 통하여 구매완료된 것은 배정량보다 적은 750톤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사료공업에 소요되는 곡물을 국내생산으로 보충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곡물의 경우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었다는 것이며, 국내 생산기반 보호는 고율관세보다도 오히려 사료공장에 대한 국산곡물의 배정으로 재배농가의 생산비를 지원하는 쪽이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배정된 국산 옥수수의 가격도 여타 곡물처럼 저희 공장도착도 기준으로 수입옥수수보다 3배가 넘었습니다.

이상 현행 관세율에 관한 배합사료업체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한개 특수업종의 요청이라는 면보다, 증가되는 사료곡물 수요에 대한 안정된 물량의 확보와 또 전국민이 골고루 고급단백식품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기반 구축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혼합기

과학적인 설계로 배합속도가 빠르고 배합이 정확하며 모타의 하부 장착으로 안정되게 가동됩니다.

100kg, 200kg, 기타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 1886